

2020년 12월 02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추가 부양책 소식에 변화를 보인 하루

추가 부양책 협상 재개 발표 Vs. 매킨리 9천억달러 부양책 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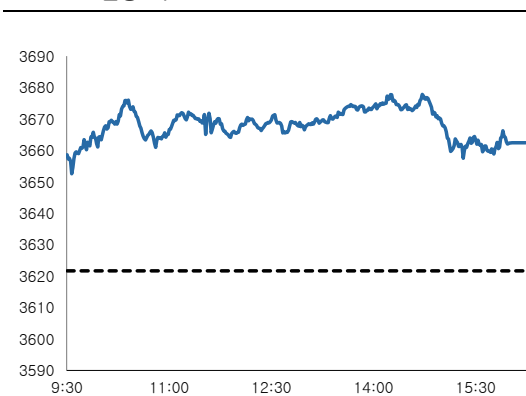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이번에는 추가 부양책 협상 기대

미 증시는 예상보다 부진한 연휴 매출 감소와 경제지표 둔화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실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며 상승 출발. 여기에 추가 부양책 협상 재개 소식이 전해지자 금융 등도 강세를 보이며 상승폭 확대. 더불어 파월과 므누신의 청문회 내용도 긍정적인 영향. 다만, 차익 매물 출회 속 매킨리의 부정적인 부양책 관련 발언으로 상승 일부 반납(다우 +0.63%, 나스닥 +1.28%, S&P500 +1.13%, 러셀 2000 +0.89%)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사이버먼데이 매출 결과가 발표. 지난 블랙프라이데이에서 오프라인 매장 매출이 전년 대비 52.1% 감소했고, 온라인 매출은 21.6% 증가한 90 억 달러를 기록해 예상을 하회. 사이버 먼데이 온라인 매출도 전년 대비 15.1% 증가한 108억 달러로 발표. 이는 예상치인 127 억 달러 증가 보다 부진. 대체로 주요 기관은 이번 조치로 연말 쇼핑시즌 매출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경향. 이는 10 월에 미리 구매를 단행 했고, 추가 부양책 지연에 따른 구매 비용 감소 및 고용 불안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 그렇지만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음. 오히려 이러한 모습이 결국 이날 발표된 펠로시 하원 의장과 므누신 재무장관의 추가 부양책 협상에 대한 기대를 높임

전일 매킨리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는 “올해 안에 추가 부양책을 통과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라고 주장. 추수 감사절 전 펠로시 하원의장이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라고 언급한데 대응을 한 것으로 추정. 여기에 공화당,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9 천억달러 규모 부양책을 제안하고 므누신 재무장관과 펠로시 하원의장도 중단 했던 추가 부양책 협상을 재개한다고 발표하자 상승 확대. 옐런도 “긴급하게 움직이는 것이 필수적” 이라고 주장하고 파월 의장도 “위험이 지나갈 때까지 경기 회복을 위한 조치는 지속될 것이다” 라고 언급한 점도 긍정적. 므누신 재무장관도 청문회에서 “빠른 지원책에 찬성” 한다고 발표 했고 바이든 또한 “취임 전 부양책은 시작일 뿐” 이라고 주장하는 등 대부분이 부양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자 위험자산 선호심리 확산. 그러나 장 마감 앞두고 매킨리 상원의원이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거부한다고 발표한 후 상승분 반납하는 등 부양책 소식에 민감한 하루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634.25	+1.66	홍콩항셍	26,567.68	+0.86
KOSDAQ	891.29	+0.58	영국	6,384.73	+1.89
DOW	29,823.92	+0.63	독일	13,382.30	+0.69
NASDAQ	12,355.11	+1.28	프랑스	5,581.64	+1.14
S&P 500	3,662.45	+1.13	스페인	8,140.80	+0.79
상하이종합	3,451.94	+1.77	그리스	758.22	+2.89
일본	26,787.54	+1.34	이탈리아	22,099.92	+0.1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대형 기술주, 금융, 레저 업종 급등

테슬라(+3.02%)는 12월 21일 한번에 S&P500 지수에 편입한다는 소식으로 강세를 보였다. 중국 전기차 업체인 니오(-10.23%)는 목표주가 상향 소식과 11월 전기차 판매(5,291대)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자 상승 출발 했으나 Xpeng(-10.89%), 리오토(-3.14%) 등과 더불어 차익 매물 출회되며 하락했다. 콜스(+13.42%)는 미용 회사인 세포라와 매장 내 23년까지 800개 이상의 매장내 매장을 개설할 것이라고 발표한 후 급등 했다. 이는 경쟁회사인 타겟(-0.27%)이 유타뷰티(+1.50%)가 전월 같은 방식으로 협력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는 소식에 JP모건(+1.58%) 등 금융주와 보잉(+1.09%) 등 항공주, 원 리조트(+1.85%) 등이 강세를 보였다.

애플(+3.08%), 알파벳(+2.33%), 페이스북(+3.46%), 아마존(+1.64%) 등 대형 기술주는 실적 기대로 강세를 보였다. 마이크론(+4.67%)은 매출과 이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하자 급등했다. 반면, 니콜라(-14.89%)는 전 CEO 밀턴의 주식 매도 랍업이 해소되었다는 점이 부각되며 급락했다. 줌비디오(-15.06%)는 예상을 크게 상회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향후 영업이익률이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하락했다. 모더나(-7.68%)는 FDA 긴급 승인 요청 소식으로 급등 출발 했으나 차익 매물 출회되며 하락 했다. 백신 회사들 중 화이자(+2.87%)는 강세를 보였으나 바이오엔텍(-8.23%), 노바백스(-11.49%) 등은 급락했다. 세일즈포스(-1.81%)는 실적 발표 후 시간 외로 4% 하락 중이다.

주요 ETF

ETF 종류	동락률	ETF 종류	동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48%	대형 가치주 ETF(IVE)	+0.82%
에너지섹터 ETF(OIH)	+4.35%	중형 가치주 ETF(IWS)	+1.15%
소매업체 ETF(XRT)	+1.22%	소형 가치주 ETF(IWN)	+1.48%
금융섹터 ETF(XLF)	+1.54%	대형 성장주 ETF(VUG)	+1.08%
기술섹터 ETF(XLK)	+1.28%	중형 성장주 ETF(IWP)	+0.30%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1.11%	소형 성장주 ETF(IWO)	+0.30%
인터넷업체 ETF(FDN)	-0.14%	배당주 ETF(DVY)	+1.26%
리츠업체 ETF(XLRE)	+1.26%	신흥국 고배당 ETF(DEM)	+2.18%
주택건설업체 ETF(XHB)	-0.56%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1.47%
바이오섹터 ETF(IBB)	+0.23%	미국 국채 ETF(IEF)	-0.53%
헬스케어 ETF(XLV)	+0.84%	하이일드 ETF(JNK)	+0.41%
곡물 ETF(DBA)	-1.09%	물가연동채 ETF(TIP)	-0.23%
반도체 ETF(SMH)	+1.82%	Long/short ETF(BTAL)	-0.36%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75.62	+0.44%	-3.69%	+22.62%
소재	449.96	+1.02%	+1.89%	+9.66%
산업재	740.02	-0.17%	-0.40%	+12.37%
경기소비재	1,283.97	+0.99%	+2.44%	+9.22%
필수소비재	692.41	+0.88%	+1.35%	+6.54%
헬스케어	1,286.61	+0.81%	+1.92%	+6.69%
금융	469.71	+1.57%	+2.28%	+16.33%
IT	2,198.66	+1.41%	+4.25%	+12.44%
커뮤니케이션	219.53	+1.96%	+3.89%	+11.60%
유틸리티	320.10	+0.75%	-0.48%	-1.20%
부동산	228.68	+1.27%	+0.41%	+5.4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실적 호전 기대 종목 중심의 차별화 지속

MSCI 한국 지수 ETF 는 1.95% MSCI 신흥 지수 ETF 는 1.97% 상승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06.27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중국의 제조업 지표 개선 및 인민은행이 3 천억 위안(50 조원) 규모의 자금을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를 통해 공급한다고 발표하자 상승했다. 더불어 마이크론(+4.67%)이 Credit Suisse 연례 기술 컨퍼런스에서 실적 추정치를 크게 상향 조정하자 반도체 업종이 상승을 주도한 점도 특징이었다. 더 나아가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가 연말까지 추가 부양책을 통과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점도 외국인의 현, 선물 순매수 기조를 강화 시킨 것으로 추정한다.

오늘 미 증시는 의회와 연준 등에서 쏟아진 추가 부양책 관련 소식이 위험자산 선호심리를 높이며 상승 했다. 특히 실적 개선에 기반한 대형 기술주 및 반도체, 은행주, 레저업종 등이 상승을 주도했다. 그러나 미 증시 상승 요인 중 반도체 지수 상승은 전일 선반영이 되었고, 추가 부양책 협상 또한 매코넬 의원의 발언으로 일부 반영이 되었던 만큼 한국 증시의 상승폭은 제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할 부분은 한국 시각 오전에 므누신과 펠로시의 협상이 재개 된다는 점이다. 결과는 오전에 나오기 때문에 내용에 따라 상승폭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 제조업지표 둔화와 코로나 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차익 실현 욕구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제한된 상승을 보이는 가운데 실적 개선 기대가 높은 종목군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차별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제조업지수 둔화

11 월 ISM 제조업지수는 전월(59.3)이나 예상(57.7)을 하회한 57.5 로 발표되었다. 세부 항목은 신규주문(67.9→65.1), 생산지수(63.0→60.8), 재고지수(51.9→51.2) 등이 부진했고 특히 고용지수는 53.2 에서 48.4 로 하락하며 기준선인 50.0 을 하회해 고용불안 우려를 높였다.

10 월 미국 건설지출은 전월 대비 1.3% 증가해 지난달 발표(mom -0.5%)는 물론 예상(mom +0.8%)를 상회했다. 다만 주거용이 전월 대비 2.9% 증가했으나 설비투자과 관련된 비주거용 건설지출은 전월 대비 0.7% 감소해 지속적인 위축이 이어진 모습이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OPEC+ 회의 연기 소식으로 하락

국제유가는 OPEC+ 회의에서 사우디는 감산 기간 연장을, 러시아는 점진적인 증가를 지지하며 마찰이 이어지자 하락 했다. 특히 화요일까지 회의 기간을 3 일(목)일 까지 결정을 연기한 점이 부담을 줬다. 시장은 3 개월 연장을 전망하고 있으나 일부 회원국들이 생산량을 늘리고 싶어 한다는 보도가 나온 점도 영향을 줬다. 러시아는 매월 50 만 배럴씩 감산 규모를 축소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UAE 는 낮은 수준의 이행률에 불만을 표하는 등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

달러화는 유로화와 파운드화가 급등하자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다음 주 10~11 일 EU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이번 주 브렉시트 무역협상 타결이 진행 되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영국에서 주말까지 관련 협상 타결이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힘입어 유로화와 파운드화는 달러 대비 0.8~1% 내외의 강세를 보였다. 한편, 역외 위안화는 제조업지표 개선에 기대 달러 대비 0.5% 강세를 보였고, 브라질 헤알화는 달러 대비 2% 가까이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제조업지표 둔화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다.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파월 연준의장은 물론,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 므누신과 공화당, 민주당 일부 위원들이 추가 부양책을 언급하자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진 점도 금리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특히 코로나 확산에 따른 고용시장 불안, 연말 쇼핑시즌 매출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러한 협상 타결 요구가 높아진 점도 영향을 줬다. 다만, 파월 의장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언급한 이후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금은 달러 약세 및 경기 부양책 기대 속 2.1% 급등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 불구하고 국제유가 하락 여파로 혼조세를 보였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2.21% 상승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44.55	-1.74	+3.46	Dollar Index	91.200	-0.73	-1.11
브렌트유	47.42	-0.96	-0.75	EUR/USD	1.207	+1.20	+1.50
금	1,818.90	+2.13	-1.37	USD/JPY	104.33	+0.02	-0.11
은	24.090	+6.63	+1.40	GBP/USD	1.3425	+0.77	+0.51
알루미늄(전일)	2,045.00	+2.33	+3.62	USD/CHF	0.8998	-1.00	-1.26
전기동(전일)	7,580.00	+1.07	+5.61	AUD/USD	0.7369	+0.34	+0.11
아연(전일)	2,790.50	-0.16	+2.23	USD/CAD	1.2934	-0.52	-0.49
옥수수	420.75	-1.23	-2.89	USD/BRL	5.2184	-2.61	-2.91
밀	577.25	-1.32	-4.51	USD/CNH	6.551	-0.50	-0.37
대두	1,162.00	-0.56	-2.48	USD/KRW	1106.20	-0.03	-0.58
커피	118.45	-3.93	+1.20	USD/KRW NDF1M	1106.27	-0.34	-0.41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0.929	+9.04	+4.94	스페인	0.116	+3.70	+4.40
한국	1.645	-1.70	+5.00	포르투갈	0.072	+4.10	+4.20
일본	0.020	-1.20	-0.50	그리스	0.651	+1.80	-1.40
독일	-0.528	+4.30	+3.50	이탈리아	0.673	+4.80	+6.2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